

# 만주사변전 在滿韓人의 수전개발에 대한 중국 동북지방 당국의 시책

金 穎

1. 머리말
2. 동북지방당국의 벼농사 권장과 관리
  - 1) 벼농사 권장시책
  - 2) 稻田公司의 설립
  - 3) 수리관리 강화
  - 4) 저습지의 減價 불하
3. 중국동북지방당국의 재만한인의 벼농사 억제정책
  - 1) 토지소유권의 금지
  - 2) 소작조건규제와 실태
4. 결 론

## 1. 머리말

중국동북지역의 주요 작물인 대두, 고량, 옥수수, 소맥, 대맥, 陸稻 등 한전작물은 일찍이 淸朝초기부터 旱田작물재배기술을 가진 산둥, 하남 등 북방지역의 이주 漢人에 의해 개발, 발전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습지를 개간하여 벼농사하는 방법을 몰랐다. 동북지역의 수전개발은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청의 압록강 北岸지역에 대한 封禁이 완화되고 漢人들의 개발붐이 일어남에 따라 대량 이주한 한인들에 의해 개시되었고 줄곧 그들 주도로 발전하였다.

현재까지의 동북지역 수전개발과 관련된 연구성과들은<sup>1)</sup> 수전개발을 둘러싼

---

1) 박영석, 1978 『萬寶山事件研究』, 아시아문화사.

黃今福, 1987 『淺談近代延邊地區的水田開發』, 『中國朝鮮族歷史研究論叢』1, 연변대학출판사.

權寧朝, 1989 『黑龍江省近代水田的發展與朝鮮民族』, 孔經緯, 『中國東北地區經濟史專題國際學術會議文集』.

동북지방당국의<sup>2)</sup> 시책에 대해 체계적인 기초정리조차 하지 않은 채 동북지방 당국의 재만한인에 대한 포악과 압박에 초점을 맞추면서 수전개발은 당시 일본의 식민지로 열악한 정치적 지위에 처해 있던 빈곤한 재만한인의 공헌이라 한다.<sup>3)</sup> 이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충분하지 않다. 만주사변전 동북지역 사회 경제전반에 결정적 역할을 한 동북지방당국의 벼농사담당자인 한인에 대한 규제와 함께 벼농사에 대한 권장과 관리시책도 이 지역 수전개발에서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여건이었다.

재만 한인의 벼농사 개발은 시간적으로 일제의 조선 식민지화, 중국 동북지역 침략 과정과 겹치며, 일제가 동북지역 침략에서 줄곧 재만 한인들을 이용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동북지방당국은 한인 수전 확대에 대한 정책도 복잡성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서 재만 한인들의 수전 개발 과정은 더욱 어렵고 고통스러워지지 않을 수 없었다.

필자는 요녕성당안관,<sup>4)</sup> 길림성당안관, 연변당안국에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

\_\_\_\_\_, 1992 『조선민족의 이주와 중국동북일대 근대 벼농사의 개척』, 『재외한인 연구』, 제2호.

홍종필, 1990 『만주 조선인 이민 수전개척소고: 1920년대 만주 조선인 이민사 이해를 위하여』, 『명지사론』 3, 명지대.

권 립, 1992 『만주‘근대수전’의 개발과 우리민족』, 『김창수교수화갑기념논총』.

衣保中, 2000 『朝鮮移民と東北地區水田開發』, 長春出版社.

- 2) 청조는 청말 이 지역의 행정기구로 盛京將軍, 吉林將軍, 黑龍江將軍을 두었고 1907년 4월에는 이를 철폐하고 동삼성총독을 두어 관리하였다. 신해혁명 후 민국시기는 군벌이 할거하는 상황이었다. 봉천성 봉계군벌 우두머리 쟁췌린(張作霖)은 1919년 8월에 길림성까지 지배하였고 그 후 열하지역도 그 지배에 두면서 동북지역을 통일하였다. 1928년 6월 장작림이 皇姑屯에서 폭살 된 후 장학량은 중앙정부에 통합되었다. 그러나 최고행정기관인 동북정무위원회는 중앙정부의 법률과 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군벌할거시기, 봉계군벌통치시기, 그리고 형식적인 중앙정부통치시기의 지배기관을 일괄해 동북지방당국으로 통칭하였다.
- 3) 衣保中の 『朝鮮移民と東北地區水田開發』은 한인 이주사를 위주로 기술하는 과정에 수전개발을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또한 일제의 만주침략이라는 큰 구조에서 접근하지 않아 동북지방당국의 벼농사 권장과 조선인 이민에 대한 규제라는 모순되는 시책을 충분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 4) 당안관 자료는 만주사변전 소속 각 현에서省下 올린 呈, 省정부가 각 현에 하달한 명령과 현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한 조사보고, 중요한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형성된 案卷, 각 機關간의 왕래문서 같은 것들이 포괄된다.

채로 방치되어 있던 벼농사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수전개발에 결정적 역할을 한 동북지방 당국의 시책들을 시대별, 지역별로 정리하여 보았다. 입수자료의 제한으로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모습은 밝혀지지 않았을까 기대해 본다.

## 2. 동북지방당국의 벼농사 권장과 관리

### 1) 벼농사 권장시책

1898년 청 光緒황제의 100일간의 유신변법 실시 후 근대농업기술의 도입, 시험장 설립 등 농업개량조치는 어느 정도 일정한 진전을 보았다. 1906년 3월 봉천성에 농업실험장이<sup>5)</sup> 설치되었고民国초기 1913년에는 봉천의 西塔灣에 수도시험지가 개설되기도 하였다.<sup>6)</sup>

1917년 5월 18일 봉천성 東豐縣 지사 謝桐森은 勸種水稻方法 講演團까지 조직하여 와지는 잡랑을 심으면 1垧 소출이 4~5석밖에 되지 않지만 만약 벼농사를 하면 소출이 15석, 20석이나 된다고 벼농사의 수익성을 선전하면서 일반 농가들의 수전경작을 권장하였다.<sup>7)</sup> 1918년 봉천성 정부는 『提唱華民耕種水稻方法』을<sup>8)</sup> 반포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각 현지사가 경내의 수전면적과 수전 적합지를 2개월 내에 자세히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현정부는 농회와 함께 벼농사의 높은 수익성을 알리는 책자를 일반 농민에게 널리 배포하여 그들 스스로 벼농사에 종사하여 토지를 방매하지 않도록 하며, 지방의 紳商들에게 공적기금으로 부족자금을 보충할 수 있는 혜택도 주면서 자금을 모집하여 稻田公司를 설립하도록 하였다.<sup>9)</sup>

1922년 3월초 봉천수리국에서 편집한 『種稻淺明法』은 새로 개간한 수전 10

5) 徐世昌, 『東三省政略』, 實業 奉天省 3면.

6) 遼寧省檔案館, 1990년 8월 『奉系軍閥檔案史料匯編』, 1 江蘇古籍出版社, 香港地平線出版社, 723-724면.

7) 遼寧省檔案館資料, JC10-4526.

8) 遼寧省檔案館資料, JC 10-2668.

9) 吉林省檔案館資料, 吉林省政府實業廳, L11 111-02-0797; J101-07-1407.

무에는 순수익이 242원 60전이 나오고 숙지 10무에는 순수익이 290원이 나온다고 벼농사의 수익성을 선전하면서 약 20여종이 되는 벼 품종을 소개하였다.<sup>10)</sup>

길림성 당국의 벼농사권장정책을 살펴보자면, 1910년대 중반 이후 쌀값이 오르자 각 지방관청은 벼농사를 권장하고 어떤 지방관청에서는 심지어 조선인 농민을 직접 고용해 벼농사를 짓기도 하였다.<sup>11)</sup> 1918년 6월 29일에는 『吉林省獎勵耕種水稻章程』이 출범했는데 길림성에서는 장려와 권장에 치중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제1조: 각 현 경내에 수전 적합지가 있으면 본 장정에 의해 장려하고 권장한다. 그러나 吉林省의 북쪽에 위치한 현들은 기후가 차서 벼농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장정이 적용되는 지역은 吉林, 伊通, 濛江, 樺甸, 磐石, 雙陽, 延吉, 琿春, 敦化, 額穆, 汪清, 和龍 등 12현에 한한다.

제2~5조: 각 현 농회는 벼농사의 이익을 농민에게 알리고 경작법을 지도하는 의무가 있으며 농회가 아직 설립하지 않은 현에서는 지사가 책임지고 일정한 량의 벼종자를 배급하면서 벼농사를 勸導해야 한다. 특히 지방의 紳商들을 勸導하여 널리 수전을 개간하도록 한다.

제6~8조: 현 지사나 농회 및 기타 단체가 벼농사 권장에서 특별히 좋은 성적을 올리면 실업청장이 현지사의 勸業考察成績條例 제3조, 農商部獎勵規則에 따라 省長公署에 모을 올려 장려한다.<sup>12)</sup>

라고 규정하여 벼농사 권장지대를 따로 12개 현으로 명확히 정하였고 현지사와 농회의 벼농사권장의 책임을 부여하였으며 그들의 권장실적을 평가하는 제도까지 도입하여 권장의 최대효과를 도모하였다.

10) 보통 많이 심고 있는 것은 1무에 奉斗로 2석 5두 수확할 수 있는 黃芒大粒, 그 다음으로 黃芒보다 좀 못한 1무에 많아야 奉斗로 1석 7두인 紅芒大粒, 따로 황무지 개간 때 자주 심는 품종으로 紫芒快, 紫芒慢, 黑苗稻 등이 소개되었다. 1922년 3월 초 봉천수리국편, 『種稻淺明法』.

11) 饒河縣지사 陸邁는 현 경내의 義順號 지방에 귀화한인 10여 호를 모집해 1916년 벼농사를 실험경작 한 결과 좋은 성적을 올렸다. 吉林省檔案館資料, 吉林省政府, L121 J101-06-0286.

12) 吉林省檔案館資料, 吉林省政府實業廳, L11 J111-02-0797.

각 현정부는 벼농사에 관한 조사 및 勸導의 직책을 맡고 수전의 확대와 수전경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지역농업발전을 추진하였다. 연길현에서 1919년 5월에 발표한 『修正延吉縣播種水稻暫行規則』 제2조에서는 모든 벼농사 적합지는 사유지, 소작지를 불문하고 모두 수전으로 만들어 地利를 충분히 살려야 한다고 규정하였다.<sup>13)</sup> 1921년 11월 19일 길림성장 쑤례친(孫烈臣)은 실업청에 德惠縣 내의 송화강 驛馬河연안일대에 수전을 개간하라고 명령하였고<sup>14)</sup> 그 해 12월 3일에는 연길현 내 布爾哈通河, 해난하유역의 서북지역 農會에게 수전을 권장하여 농사를 진흥하라는<sup>15)</sup> 훈령을 내렸다.

1923년 吉林省清理田賦局은 경내의 저와지를 조사하면서 제14호 훈령으로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수도작은 자금이 별로 들지 않지만 수익이 배로 크며… 토지가 비옥하지만 (중국인은) 수전에 대해서는 본래부터 잘 몰라서 하천, 호수, 못 등 습지는 아쉽게도 개간하지 못했다. 봉천성은 稻田사업이 개시된 후 성과가 크다. 근래 길림에서도 이를 본 따서 행하는 자가 간혹 있는데 그 수익이 可觀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韓僑에게 경작을 맡기고 자신은 경작하지 않는다. … 현재 清丈清賦하는 참에 하천 양안이나 호수 주위에 있는 벼농사할 수 있는 와지를 비옥 정도에 따라 불하 여부와 관계없이 官에서 경영하거나 혹은 민간에서 경영하도록 하고 韓僑는 고용하여 경작에 보조가 되도록 한다. 토지등급 매김에도 너그럽게 해 주니 … 관할 현 내의 수전면적을 확실히 조사하여 훈령 반포 후 2개월 내에 상세히 보고하라<sup>16)</sup>

이와 같이 吉林省清理田賦局은 벼농사의 높은 수익성과 수전개발에 있어서

13) 吉林省檔案館資料, 吉林省政府, L14 J101-07-0287.

14) 吉林省檔案館, 吉林省政府實業廳, L121+L16 J111-02-0846.

15) 吉林省檔案館, 吉林省政府實業廳, L121+L16 J111-02-0848.

16) ‘民食之源, 首重農業, 而水田尤爲切要. 其需資無多, 而收利較厚, 事半功倍, … 東省土地肥美, 農業甲于中邦, 獨于水田一事, 素乏講究, 以致沿江沿河沿湖之地, 水塘淤沼, 天然美利任聽拋棄, 誠爲可惜. 查奉天省興辦稻田, 已著成效. 近來吉林間有仿行, 收益亦甚可觀. 然多半招致韓僑, 未免舍主就客, 自甘放棄, … 茲就辦理清丈清賦之便, 于延江沿河沿湖各縣揀其大段窪田宜種水稻之區, 無論已放未放, 分別肥瘠一律劃出, 或由官辦, 或飭商民自辦, 一面雇用韓僑相助爲理. 至于繳價升科, 不仿量爲寬展, … 合亟令仰該縣即便遵照, 迅將該管境內共有水田若干, 切實查勘, 繪具草圖, 註明坐落, 垧數, 限于文到兩個月內, 詳細具報’ 吉林省檔案館資料, L121 J101-12-

의 한인 주도의 실태를 분석하면서 완전히 한인에 의지하지 않고 그들에 대한 일부 고용만을 허용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하여 수전 개발에 적합한 저습지를 불하여부에 관계없이 수전으로 경작하도록 하고 세금 납부와 토지등급을 매기는데도 혜택을 준다며 수전의 확대와 그 면적의 파악에 힘썼다. 그 후 9개월 지나서 길림성정부가 발표한 조사결과를 보면 유수, 동변, 화룡, 화진, 호림, 화천 6개 현의 조사결과가 빠진 상황에서도 길림성의 수전은 1만 852상, 미개간 수전은 5만 2193상 8무에 달하였다.<sup>17)</sup>

1926년 『吉林縣實業局倡辦水田種稻簡章』 제3조에서는 수전으로 개간할 수 있는 황무지의 토지소유증서를 檢驗하여 1년의 기한을 주어 개간하도록 하고, 그래도 개간하지 않으면 실업국에서 대신 경작해 주며 임자 없는 황무지는 官荒으로 취급하고 수전경작이 旱田 경작과 충돌이 생기면 현 공서를 거쳐 실업청에 보고해 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sup>18)</sup>

화룡현의 벼농사 권장의 一例를 보자면 1927년 3월 24일 四光社民 崔宗樞 등의 수로 開鑿을 위해 돌을 폭발시키는 炸藥 200개의 구매신청은 길림성으로부터 경찰 제5구 분소장의 엄밀한 감시를 받아야 된다는 조건으로 허가되었다. 1930년 12월에도 화룡현 정부는 水道에 지장이 되는 돌을 폭발해 긴 돌을 쌓기 위해 四光社 간민 朴鐘律에게 八道河子 및 延吉局子街에서 銃藥 40근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sup>19)</sup> 당시 武器類를 엄격히 단속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수전개발을 위해 炸彈 구매를 허락한 것은 대단히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로 부터 수전을 발전시키려는 화룡현 정부의 열망을 엿볼 수 있다.

길림성 각 현에서 벼농사권장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1929년 7월 17일 길림성정부는 지령 제6395호로 『吉林省政府建設廳管理稻田水利暫行章程』을 반포하여 전 省 범위에서 벼농사를 한층 더 권장하였다.<sup>20)</sup> 장정 제3조에 의하면 건설청은 稻田試驗場을 부설하여 시험재배하고 각 현에서는 연습원을 선발하여 견습시키며 수전 면적 등 수전 관련 상황을 수시로 조사, 파악하며

17) 관현이 수전조사와 淸丈淸賦를 동시에 진행하였으므로 지주는 세금납부를 회피하려고 수전 면적을 은닉하고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18) 吉林省檔案館, 吉林省政府實業廳, L14 J111-02-0901.

19) 延邊檔案館, 和龍縣公署, 39-3-661.

20) 吉林省檔案館資料, 吉林省政府, L121-13 0101-20-0627.

대규모 경영자에 한해서만 외국인 기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길림성정부수석위원 장쑤쑤(張作相)은 1929년 3월 25일 동남 수해지방 8현의 중국인, 한인 소작농민에게 3만여 석의 구제곡을 배급하였다. 그리고 흉작으로 靑田貸, 고리대를 반환하지 못한 한인 소작농이 중국인 지주의 핍박에 못 이겨 노령 및 기타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농사지식이 풍부하고 농업개량 생산에서 독특한 능력이 있는 이들이 갑자기 이전해 가면 경내의 생산능력이 감퇴되고 경작지의 황폐화가 초래된다고며 벼농사 권장의 차원에서 그들을 구제하라는 내용의 훈령을 내리기도 하였다.<sup>21)</sup>

동북지방당국의 벼농사권장은 어디까지나 중국인에 의한 벼농사 권장이었다. 그들은 자국의 과잉인구 문제를 해결함과 아울러 침략의 선봉으로 이용되고 있는 벼농사하는 한인들의 이주에 대항해, 벼농사를 잘하는 남방 稻作農民을 유치하였지만 기온의 차이, 米食습관 및 기타 생활습관의 차이 때문에 실패하였다.<sup>22)</sup> 동북지역에 몰려드는 하북, 산동의 苦力들은 주로 水渠를 파는 수로공사의 노동력으로 많이 이용되었다. 길림성 장춘부근 만보산에서 벼농사 개시 때에 한인은 선후 2차례나 중국 苦力 200여명을 수로 開鑿에 이용하였다. 결국 동북지역의 벼농사는 생존을 위해 갖은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벼농사 기술을 가진 재만한인의 몫이 되었다.

## 2) 稻田公司의 설립

동북지방당국이 紳商들에게 도전공사 설립을 권장한 결과, 도전공사 설립 열풍이 일어났다. 봉천성은 일찍이 청말부터, 길림성은 봉천성 보다 늦게 1920년대에 들어서서 설립되기 시작하였고 흑룡강성은 더 늦은 20년대 중 후반에 이르러서야 설립되었다. 도전공사 설립시기의 변화는 이주 한인이 처음 기후가 따뜻한 남부 봉천성에서 벼농사를 하다가 小田代, 北海稻 등 북만지역에 적합한 벼 품종의 도입으로 북부지역에서의 벼농사가 가능해지고 1925년 『三矢協

21) 『支那側ノ小作鮮農救護方訓令ニ關スル件』, 1929년 5월 9일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資料, 『滿蒙各地ニ於ケル朝鮮人ノ農業關係雜件(1)』.

22) 荻原昌彦, 1932 『滿洲之産業』(稻の卷), 49쪽; 일본외무성육해군성문서, MF 002008 『在滿鮮人壓迫事件調査報告書』, 1931. 130면.

定』 후 봉천성 정부가 한인들의 소작을 불허하고 고용을 제한하고 驅逐하는 정책을 실행함에 따라 한인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북부지역으로 이동해 가는 추세와 일치하였다.

만주사변전 봉천성과 길림성에서 설립된 주요 도전공사설립상황은 <표2-1>, <표2-2>와 같다. 흑룡강성의 도전회사로 齋齋哈爾 지방을 살펴보면, 1925년 要多羅지방에서 廣信公司가 10년 계약으로 수전을 경영하였고<sup>23)</sup> 1926년 북위 46도 8분의 흑룡강성 泰來縣 烏利河桿崗兒에서 慰麓稻田社가 벼를 재배하였다.<sup>24)</sup>

<표2-1> 만주사변이전 봉천성 도전공사 설립상황

명칭	설립지역	설립년월	설립자	비고
奉天官牧場	黑山縣	1906		1912년에는 도전을 1,100여 무 개간하였고 모두 1,600여 원을 투자하였음.
新紀公司	新民縣	民國初年		48ha 수전에 벼 1,440석 수확함.
溥豐農場	奉天昭陵	1912. 4	崔洵生	청 황실 三陵衙門의 토지를 청부하여 '倡辦稻田, 種植果木' 했는데 公司 1,200여 무 중 450무에 벼를 시험 재배했음.
彰武農牧樹藝模範會社	彰武縣	1913	縣知事	1,000여 무를 구입하여 '試種水旱各田' 했음.
遼中縣試辦稻田事務所	遼中縣	1913	李文華, 王述略, 陳和中	주식 2만원을 모아 현 경내 1500~1600日 토지에 벼를 재배했음.
圍記稻田公司	鐵嶺縣 南區 亂石山 附近	1914	楊春芳	1년간 시험경작하여 만약 효과가 좋으면 지방관에 허가신청을 하고 奉大洋 100원을 한 개 주식으로 하고 토지주식은 모두 2,000日, 개인 소유지나 租借地를 불문하고 토지1日(10무)을 한 개 주식으로 삼았다.
遼中縣興業稻田公司	遼中縣	1924	楊春芳, 陳錫九 등 7명	公司주식은 奉大洋 5만원, 500개 주식으로 나누었다. 토지주식은 10무를 한개 주식으로 하고 현금 주식은 100원을 한 개 주식으로 하였음.

23) 伊藤榮之祐, 1931 『滿洲ニ於ケル水稻栽培』, 325면; 1925년에는 180상(1상은 2880평)에 조선인 농민 30명을 고용해 50상을 개간하였다.

24) 黑澤謙吾, 1927 『滿洲稻作界の概況』, 『農業の滿洲』, 제1권, 장간호, 59쪽; 1937년에 이르러서는 북위 49도의 烏雲, 愛琿지방까지 재배되었다. 이는 세계 수도재배의 最北限地이었다. 小島清重郎, 1937 『滿洲に於ける稻作の現在と將來』, 『農業の滿洲』, 제9권, 제3호 13면.



洮安縣興業 稻田公社	洮安縣 海爾珍河	1924	王同光	봉천수리국장정 제8조에 의해 조직되었는데 중국인이 아니면 주식을 살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그들은 제2구 楚倫波지방에 荒田 28方에 버를 재배하였는데 경영성적이 좋았다.
突泉縣稻田 公司	突泉縣柳 樹川 歸流河兩 岸	1924	德養源	황지 100여 方을 맡아 조선인 농민을 고용하여 수전을 시험 경작하였음.
營田株式有 限公司	營口縣平 安河地方	1925. 4	徐棟臣, 馬西山 등 32명	海退淤地 76,600무를 신청해 遼河까지 2리 되는 水渠를 파서 그 해에 수전 850무를 개간했음.
鐵法稻田公 司	鐵嶺縣 第7區	1926. 4	李陽春 등 7명	雙樹子 小青堆子和 法庫縣 高家高堡 등 촌에서 遼河를 이용하여 벼농사를 하고 부근의 민호가 이 물도량을 빌려 관개하려면 수리비를 내야 하거니와 해마다 수확량에서 1할을 회사에 내야 한다.
義和水田公 司	賓圖王旗	1920 봄	高玉山 등	賓王府의 황지 1,000여 무, 숙지 1,000여 무를 빌려 조선인 농민을 초치해 추후 반반 나누기로 약속하고 수전 경영에 착수함.

출전: 奉天官牧場; 遼寧省檔案館資料, JC10-7031.

新紀公司: 『東三省農林墾務調查書』, 124-129면.

溥豐農場: 『農林公報』, 제2년, 第14期.

彰武農牧樹藝模範會社: 『農林公報』, 제2년, 제20期.

遼中縣試辦稻田事務所, 遼中縣興業稻田公司: 遼寧省檔案館資料, JC10-7563.

圃記稻田公司: 遼寧省檔案館資料 JC10-4539.

洮安縣興業稻田公社: 『奉天通志』三, 108권, 田畝 下 水利 29면; 遼寧省檔案館資料, JC10-7563.

突泉縣稻田公司: 遼寧省檔案館資料, JC10-4540.

營田株式有限公司: 遼寧省檔案館資料, JC10-4537.

鐵法稻田公司: 遼寧省檔案館資料, JC10-4532.

義和水田公司: 遼寧省檔案館資料, JC10-4543.

&lt;표2-2&gt; 만주사변이전 길림성 도전공사설립상황

명칭	설립지역	설립년월	설립자	비고
益興泉會社	德惠縣三道溝 二道溝, 樺甸縣	1919. 4	楊國棟, 姜哲, 裴亮	吉洋 2만원으로 德惠縣 속지 180여상, 樺甸縣의 속지 80여상을 빌려 봉천 등지의 조선인 朴英超, 朴聖三, 申南玉 등을 고용하여 경작했음.
興榆稻田公司	榆樹縣什岔河兩岸	1920		荒地 1,000상에서 207상 3무를 수전으로 개발. 경영성적이 좋아 1927년 길림성 실업청의 표창을 받음.
吉林慰農水田公司		1920. 4		吉林官帖 100만묘를 모집하여 ‘租地開荒 引水種稻 爲其經營業務’로 수전 300상을 경작함.
華豐水田株式公司	饒河縣	1921. 12	趙世保 등 12명	조선인 이민에 대한 상당한 보호가 없으면 자본이 있어도 실효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하여 회사측에서 출자하여 조선인을 보호하기 위한 護墾隊를 두어 지방의 경찰보위단과 협력했음.
裕寧屯墾有限公司	小綏芬河	1922	張宗昌	원래 북경 葛福華의 소유였던 것을 4년 전 綏寧鎮守使陸軍中將 張宗昌이 매수하여 조선인과 중국인에게 소작시켰음.
興利稻田有限公司	樺甸縣	1922	陳聯芳 등	境內의 저와지를 대여 받아 벼농사를 함.
光開水利公會	和龍縣제5구	1922	조선인 張子郁	‘專事開築水道, 改種稻田’한다며 조선인 농민 200~300명을 모집하여 1년 간 수전 약 200여상을 조성했음.
東北墾牧公社	寧安縣	1923	奉天中央政廳管理	동경성부근 干家屯의 郭松齡 소유지를 몰수하여 자본 3만원으로 벼농사를 개시. 1927년 수전개간지 200여상에 조선인 40여호가 경작했음.
敦化縣稻田開發	敦化縣城場溝黃密河一帶		萬茂森 등	자금을 모아 稻田 100여 垧을 개간. 성적이 좋아 大靑川에서 다시 수전을 많이 개간하여 이익을 얻어 부근 民戶의 본보기가 되었음.
虎林縣稻田公司	虎林縣	1926	解金榮	阿碼琴河의 수전적합지에 주식 大洋 6,000원을 모집하여 馬芳靑을 지배인으로 추대해 농기구를 구매하고 조선인 이민을 招致해 1927년에 20여상의 수전에 벼농사를 개시. 이곳의 수전적합지는 400여상이나 됨.
惠濱稻田公司	濱江縣2區界	1927	曾子固 王理堂	宋家甸子 劉家油房에 설립
吉寧水田農社	海林附近	1927	吉林省長, 哈爾濱楊海元, 寧安縣財政處長	본 農社의 소유지는 지주부터 강제로 매수하거나 지세 3개년간 체납한 자의 토지를 몰수한 것임. 해립부근 50상, 팔리강부근 600상에서 수전경작.
靠山屯稻田公司	農安縣靠山屯	1928		길림방면의 약 35호, 120명의 조선인이 이통하 양안의 저습지에 중국인 지주 궤씨와 계약을 맺고 약 300상 수전에 벼농사 착수.

沖河稻田公司	榆樹縣高子橋農場	1929	前東北軍師長	귀화하지 않은 자에 대해 조선인 대표 3인이 보증을 서서 稻田公司에 신고하였고 회사는 현 당국과 교섭하여 잠정적인 귀화수속을 갖도록 하였고 공사가 직접 모집한 조선인 농민의 귀화수속은 회사가 직접 책임졌음.
惠濟稻田公司	濱江縣	1929		稻田 210상을 경작하였으나 큰 수해로 조선인 소작농은 ‘星散潛逃’하여 단 31상에서만 수확이 가능.
珠河農場	珠河縣	1931	段祺瑞	길림 珠河에 6000천지의 수전을 경영.

출전: 益興泉會社; 吉林省檔案館資料, 吉林省政府實業廳, L11 J111-02-0797.

興榆稻田公司; 吉林省公署民政廳土地科, 『鮮農小作問題に就て』, 1935 136-137면.

吉林慰農水田公司; 吉林省檔案館資料吉林省政府實業廳 L16-13 J111-02-0824.

華豐水田株式公司; 吉林省檔案館資料吉林省政府實業廳 L16-3 J111-02-0868.

裕寧屯墾有限公司; 在外鮮人調查報告, 1927 『滿蒙の米作と移住鮮農問題』, 174면.

興利稻田有限公司; 吉林省長公署檔案, 11(7-7)-2074 및 2138호; 衣保中, 『朝鮮移民與東北地區水田開發』, 50면.

光開水利公會; 위와 같음.

東北墾牧公社; 在外鮮人調查報告, 1927 『滿蒙の米作と移住鮮農問題』, 175면.

敦化縣稻田開發; 吉林省檔案館資料, 吉林省政府, L121 J101-16-0371.

虎林縣稻田公司; 吉林省檔案館資料吉林省政府實業廳, L16 J111-02-0905.

惠濱稻田公司; 吉林省檔案館資料吉林省政府實業廳, L16-34 J111-03-0745.

吉寧水田農社; 在外鮮人調查報告, 1927 『滿蒙の米作と移住鮮農問題』, 174면.

靠山屯稻田公司; 『在滿朝鮮人概況』, 55면.

沖河稻田公司; 『北滿鮮人農村概況』, 『パンフレット』, 제142호, 1930 15-16면.

惠濟稻田公司; 吉林省長公署檔案, 11(7-7)-2074 및 2138호; 衣保中, 『朝鮮移民與東北地區水田開發』, 50면.

珠河農場; 『滿日新聞』, 1931년 3월 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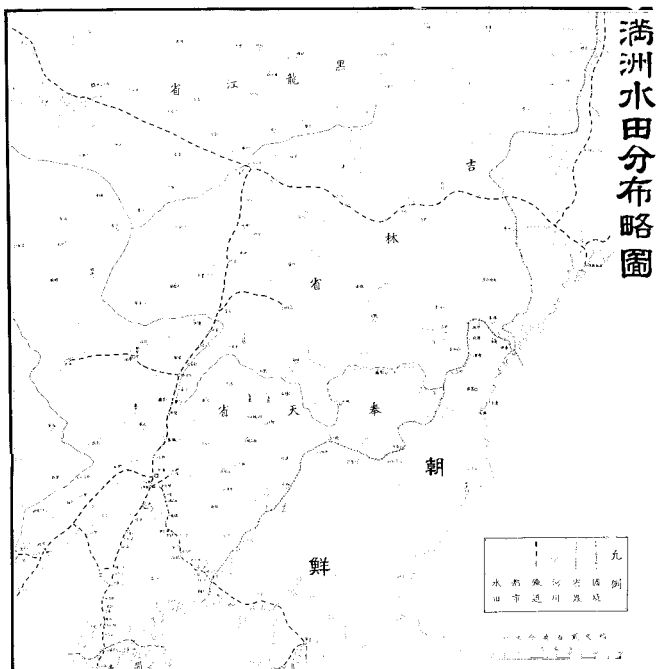
동북지방당국은 벼농사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중국인의 도전공사설립을 권장하였지만 허가는 매우 신중하였다. 특히 일본자본이 들어있는지 여부에 신경을 썼다. 1927년 6월 21일 敦化, 額穆 두 현의 沙毓山 등 10인이 제출한 中日合辦厚生水田墾地股份有限公司 설립신청은 허가해 주지 않았다.<sup>25)</sup> 도전공사설립 후에도 일본자본이 들어있는 것이 발견되면 뒤늦게라도 즉시 그 회사를 해산시켰다. 길림성 정부는 1931년 8월 13일 長農稻田公司에 만보산사건에서 그 불법적 내막이 드러난 후 회사를 취소한다는 명령을 내렸다.<sup>26)</sup>

도전공사의 설립은 벼농사기술을 갖춘 한인 농민의 수요를 증대시켜 더욱

25) 吉林省檔案館, 吉林省政府, L14 J101-16-0261.

26) ‘茲聞該公司與萬寶山肇事案有關, 其內幕已可概見, 應由廳飭縣將該公司立予取消’ 遼寧省檔案館, 吉林省檔案館, 中共吉林省黨史研究室, 1991 『萬寶山事件』, 97면.

많은 한인 농민의 이주를 부추기기도 하였다. 도작공사는 비록 애국과 주권회수를 구호로 설치된 것도 있었지만 한인에게 소작사키기 위해 귀화허가증명서를<sup>27)</sup> 소지하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종종 護墾隊를 조직하여 조선이민의 생산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보호하는 경우도 많았다. 도전공사는 자금이 없는 이주 한인이 어느 정도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의 安身處가 되기도 하였다. 1931년 북양군별 段祺瑞의 길림 珠河水田公司의 경우, 회사측은 한인들에게 1명에 40원의 여비를 제공해 유치하기도 하였다.<sup>28)</sup>



<도 1> 만주사변직전 중국 도전공사 분포도

27) 그 한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歸化許可執照』

歸化者金相憲年40歲原籍韓國咸陽道現住奉天開原縣職業農 隨同歸化者妻子李氏子二女一 右開金相憲等依修正國籍法稟請歸化 核與法定條件相符 除由部許可注冊外合給執照爲憑 右執照給金相憲等收執 內務部給 民國8年 12月 歸字第 6140 號執照 遼寧省檔案館資料 JC10-2671

28) 『滿日新聞』, 1931년 3월 14일.

### 3) 수리관리 강화

벼농사 발달과정은 수리문제의 극복 과정이기도 하였다. 재만한인은 물을 끌어들이어 벼농사하기 때문에 중국인 각 마을에서는 그들의 평온한 생활을 깨뜨리고 생존기반인 밭농사를 망칠 우려로 한인의 입주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동북지방당국이 명확한 수리장정과 규칙을 제정하여 수리 조절과 관리를 강화한 것은 한인의 수리시설에 대해 규제를 가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인과의 분쟁을 완화시켜 결과적으로 만주 벼농사발달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일찍이 1912년 11월 중국 북양정부는 章炳麟을 東三省籌邊使로 임명해 三省都督과 함께 수리개발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지만<sup>29)</sup> 별 성과가 없었다. 봉천지역에서 수리관리기구인 수리국, 수리분국이 설치된 후 수전면적은 급격히 확대되었고 수전 개발붐이 일어났다. 1906년에 심양 경내에 벼농사가 시작되고 신민부는 1910년에 최초로 수리통제 관리기구인 신민포하수리국을 설립하였다.<sup>30)</sup> 1911년 청정부는 蒲河유역에서 42華里的 용수로(지금의 新開河)를 파서 습지를 비옥한 수전으로 만들었다.<sup>31)</sup> 1913년에는 奉天 福勝關火神廟胡同에 심양현 내 수전사무를 직접 관리하는 봉천수리국이 설립되었다.<sup>32)</sup> 봉천수리국이 설립된 후 1913년 10월~1914년 5월 혼하의 물을 포하에 끌어들이는 관개 공사를 추진하여 심양 서북교외의 수전개발사업이 흥해지고 봉천 부근 조선인 인구가 급증하였다. 서공태보자를 중심으로 부근 열 몇 개 촌의 부락에 한인이 1917년에는 229명, 1918년에는 595명, 1919년에는 775명, 1920년에는 1,500명으로 증가되었고 혼하 연안에 조선인 集居村이 형성되었다.<sup>33)</sup>

29) 『吉林省大事記』, 22면.

30) 東北物資調節委員會, 1947 東北經濟小叢書, 『農田水利』, 3쪽; 『滿洲經濟研究年報』, 1941 212면.

31) 『奉天通志』 三, 113권, 田畝 下, 수리, 16면.

32) 신민포하수리국은 신민제1수리분국으로 개칭되었다. 1924년 제1수리분국을 新遼河水利局로 개칭되었다.

33) 『奉天通志』, 卷108; 1931년 11월 일본동아권업주식회사는 32,000圓의 공사비를 내어 東陵제방을 補强하고 護岸工程 水閘 및 조절장치 등을 改修하였다. 東北物資調節委員會, 1947 東北經濟小叢書, 『農田水利』, 12면.

그 후 1916년에 신개하와 포하를 疎浚하였고 1921년에는 남북 2개 分干渠를 증설하고<sup>34)</sup> 東陵, 小北門, 後塔灣, 劉家窩鋪, 大房身, 後邊臺, 沙崗子, 沙嶺堡 8곳에 수리과출소를 설립하였다.<sup>35)</sup> 이 공사는 瀋陽, 新民, 遼中의 3개 현에 걸친 연안 약 5천 町步의 水田의 用水공급을 책임졌다.

봉천성정부는 1923년에 『管理用水規則』을<sup>36)</sup> 반포하여 수전관개용수에 대한 정부의 관리를 강화하였고 지주들이 水渠占用地를 奇貨로 여겨 그곳 用地에 대해 마음대로 임대료와 대금을 요구하여 수전발전을 저해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1923년에 溝渠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경과할 경우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규칙인 『河道用地規則』을 반포하였다.<sup>37)</sup>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제3조: 水渠用地 지가를 5등급으로 나눈다. 상등 園地에 대해서는 1무에 小洋 80원, 上等地는 1무에 소양 60원, 中等地는 1무에 소양 30원, 下等地는 1무에 소양 25원, 民荒은 1무에 小洋 10원으로 劃定하여 수매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토지의 비옥 정도에 따라 시가로 계산할 수도 있으며 무덤을 移葬해야 할 경우 移葬費로 小洋 15원을 내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이렇게 水渠用地를 5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에 대해 명확한 수매기준을 정해 통제함으로써 이주 한인에 의한 수전 개발에서 제일 큰 걸림돌인 河道用地를 둘러싼 분쟁을 줄여 수전면적의 확대를 추진하였다. 1929년에는 『興辦水利防禦水災獎勵條例』를 공포하여 수리공사사업에 대한 직접적 보조와 장려시책까지 강구하였다.<sup>38)</sup> 여기에서 봉천성장의 벼농사 권장에

34) 遼寧省檔案館資料, JC10-2227.

35) 沈陽市人民政府地方志辦公室, 1989 『沈陽市志』, 遼寧民族出版社, 396면.

36) 吉林省檔案館資料, 吉林省政府實業廳, L16 J111-02-0905.

37) 吉林省檔案館資料, 吉林省政府實業廳, L16 J111-02-0905; 1922년 3월 31일 開原縣 지사 文光은 개원현 경내의 『河道用地規則』을 開原縣公署布告로 발포하였다. 開原縣公署, 3390.

38) 이 조례에 따르면 수리사업으로 인한 이해관계가 2현 이상에 걸치고 공사비가 5萬元을 초과하면 公定金額의 10분의 3을 보조금으로 지불하고, 수리공사사업이 한 개 현에 限하지만 그 利害관계가 2개 현 이상에 달하고 공사비가 만원을 초과하면 수리공사비 10분의 2를 보조해 주며, 수리사업이 그 지역에 대한 영향이 크고 공사비가 5000원을 초과하면 공사비 10분의 1을 보조해 준다고 규정하였다. 이 조례에서는 또 수리공사비 부족자금을 대역해 준다고 규정하였다. 즉 관개면적이 50平方里 이상이 되고 공사비가 만원을 초과하면 수리공사비 부족자금 대역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볼 수 있다.

길림성은 1929년의 『吉林省政府建設廳管理稻田水利暫行章程』이 제정되기 전까지 수전에 관해 특별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벼농사가 발달한 현들에서 자체로 수리규칙을 정해 성공서의 허가를 받고 수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던 것이다. 이들 현에서는 旱田지주가 溝渠 점용지를 奇貨로, 고의로 高價의 租借料를 요구하거나 혹은 임대를 약속한 후 그 다음해에 해약하거나, 먼저 낮은 임대료로 대여한 후 임의로 증액해 분규를 일으키는 등 수전 경작에서 자주 일어나는 水渠占地 분쟁 해결에 중점을 두었다.

아래에 우선 延吉縣, 榆樹縣의 수리규칙을 살펴본 후 『吉林省政府建設廳管理稻田水利暫行章程』의 규정을 살펴면서 길림성당국의 수리정책의 진행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연길현에서는 1919년 『修正延吉縣播種水稻暫行規則』<sup>39)</sup>을 제정하였다. 이 규칙에서는 水渠占地의 임대, 賣價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여 실제 집행에서 따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주의 자의적 가격 매김을 制止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5조, 제13조, 제15조: 만약 벼농사하기 위해 물도랑을 낼 경우, 그 경과지가 官地라면 신청하여 조차할 수 있고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것을 구실로 토지를 侵占하거나 왕래 통행의 길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水渠占地가 만약 學田<sup>40)</sup>이라면 대체로 民有地와 같은 기준으로 임대료를 내거나 매수할 수 있다.

만약 물도랑 점용지가 民有地라면 稻戶가 지주와 상의해 그 토지를 借用하려면 지가는 上等地 수입을 기준으로 각 稻作농호가 면적에 따라 나누어 지불하도록 하

금액은 총 소요비용의 절반을 초과하지 않으며 면적이 30평방리 이상이고 공사비가 5000원을 초과하면 대여금은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않으며 면적이 10평방리 이상 공사비가 3000원을 초과하면 대여금은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沈陽市人民政府地方志辦公室, 『沈陽市志』, 제8권, 農業, 1998 393면.

39) 延邊檔案館, 汪清縣公署, 32-7-542.

40) 學田이란 그 토지에서 징수되는 소작료를 官學, 公學, 史學 등의 비용으로 충당되는 공유지를 칭한다. 학전은 省 소유의 것, 현 소유의 것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현 소유이었다. 각 현은 현 내의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대부분 학전을 경영하였다. 滿洲事情案內所, 『滿洲の土地事情』, 1940 25면.

고 임대료에 해당된 양곡은 시가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불한다.

만약 水渠점용지를 임대해 준 지주가 벼농사를 하게 되면 각 稻作농호의 동의를 거쳐 그들과 똑같이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溝渠 파는 비용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제11~12조: 지주가 만약 水渠占用地를 매각할 의사가 있으면 상등 토지의 시가로 계산해, 각 농호가 수전면적에 따라 부담하며 公共用水地로 취급하도록 한다. 매매계약서 한 부는 현 공서에 제출해 둔다.

연길현은 위와 같이 水渠가 官地를 경과하면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民地나 學田을 경과하면 명확한 임대기준과 매수기준을 정하는 등 水渠占用地에 관련한 규정을 통해 현 정부의 수리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하였고 수전경작으로 인한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고 수전 면적의 확대를 도모하였다.

榆樹縣지사 리위청(厲維城)은 1927년 4월 15일 『榆樹縣實業局倡辦水田簡章』을 제정하였는데 이 簡章에서는 水渠가 타인의 토지를 지날 때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지주도 과다한 요구를 제기하여 벼농사에 지장 주는 일이 없도록 하며 상류에서 물을 독점하여 하류 벼농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봉천수리국장정에서 정한 里數에 따라 水道를 開鑿하고 먼저 시작한 수전업주에게 우선권을 주어 보호한다는 원칙을 정하였다.<sup>41)</sup>

길림성 정부는 길림성 각 현의 수리정책과 그 시행효과 및 봉천성 수리정책을 참작해, 뒤늦게 1929년 7월 17일 지령 제6395호로 『吉林省政府建設廳管理稻田水利暫行章程』<sup>42)</sup>을 제정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제12~13조: 새로 수전을 만들어 水渠를 파야 할 경우, 用水期 3개월 전에 현정부에 보고한다. 溝渠占用地 買受는 반드시 현정부의 매수 확인을 거쳐 기타에 방해가 없음이 확인된 후에야 開鑿할 수 있다.

제14조: 각지의 하천유역이나 우물로 경작하는 수전은 먼저 현에 신고한 자에

41) 吉林省檔案館資料, 吉林省政府實業廳, L16 J111-02-0904.

42) 吉林省檔案館資料, 『吉林省政府建設廳管理稻田水利暫行章程』, 吉林省政府, L121-



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만약 동시에 신청했으면 먼저 경작한 자가 우선권을 갖고 만약 동시에 파종했으면 상류에 있는 도전업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이 장정에서는 길림성 범위 내에서 水渠占用地의 매수와 시공은 반드시 현 정부의 허가를 필수로 하고 수전 개발 우선권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리에 대한 길림성정부의 관리강도를 높였다.

위 장정이 반포된 후 이듬해 1930년에 길림성 행정회의는 건설청에서 제기한 『整理稻田現有溝渠案』을 통과시켜 수리에 대한 통제를 한층 더 강화했다. 이 案의 내용을 보자면 도전수리장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몰도랑이 반드시 民有地를 지나야 할 경우 관할 현정부에 신청해 收買하며 그 가격은 촌장부가 旱田 최고 지가의 1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부주의로 다른 한전에 손실을 끼칠 때에는 상당한 배상을 해야 하며 水渠占用地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한 후에는 지주는 구실을 대여 가격을 올리지 못한다고 하였다. 분쟁이 발생하면 廳에 보고해 조사하도록 하고 새로 稻田을 개간하기 위해 占用되는 水渠用地요구에 대해 한전지주는 거부하지 못한다고<sup>43)</sup> 규정하였다. 水渠占有地에 대해 최고지가를 정해 놓고 지주가 수거점용청구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정부의 수리관리를 한층 더 강화함으로써 開畝를 위해 원활한 길을 열어놓았다. 이 案은 만주사변을 1년 앞두고 제정한 것으로 실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지만 그 당시 길림성정부의 수전개발을 추진하려는 강한 의지를 추정할 수 있다.

동북지방당국이 이상과 같은 권장시책을 펼쳤지만 그들에 의해 주도된 수리공사는 별로 없었고 오히려 벼를 경작하는 자에게 수리세를 징수하여(수리세는 지주로부터 징수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조선인 소작농민에게 전가됨) 재정보충의 주요 원천으로 삼아 수전사업의 진일보 발전을 저해하기도 하였다. 1914년 제정한 『奉天水利局辦法章程』에 따르면 수리사업비용은 수익자 자신이 부담한다는 원칙이었지만 정부는 수전공사 시행여부에 관계없이 수리세의 징수를 의무화시켰다.<sup>44)</sup> 1922년 2월 9일 청장국총관겸관수리국사 왕

43) 延邊檔案館, 敦化縣政府, 51-3-543.

44) 1922년 1월 19일 淸丈局總辦兼管水利局事 왕정환(王鏡賓), 淸丈局坐辦兼管水利局事 름청위(林成秀)가 봉천성장에게 올린 『奉天淸丈局兼管水利局徵收水利章程』

정환(王鏡實)과 청장국좌판겸관수리국사 린청쉬(林成秀)가 봉천성장에게 올린 보고에 의하면 경작한 수전이 38만여 무에 달하는데 수전에서 30여 만원의 수입이 나온다<sup>45)</sup>고 하였다. 그 후 奉天票<sup>46)</sup>의 하락으로 수리세가 대폭 오르기도 하였고 수리세징수과정에서의 폐단도 엄중하여 수전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 4) 저습지의 減價 불하

청정부는 1895년 『中日馬關條約』 체결 이후 동북지역에서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安置流民’ ‘開荒濟用’ ‘以利餉源’ ‘移民實邊’ 등의 명목으로 황지를 전면적으로 불하하면서 적극적인 ‘이민개발’정책을 폈다.<sup>47)</sup> 1910년 신해혁명 때 봉천성, 東邊封禁地는 대부분 불하되었다.<sup>48)</sup> 동북지방당국의 토지에 대한 적극적인 減價 불하정책과 清丈(토지면적을 조사 등록하거나 토지등급을 올리는 것)을 하여 浮多地를<sup>49)</sup> 축출해 내어 다시 불하하는 정책, 지속적인 招墾(개간

---

에 의하면 수전 숙지에서는 해마다 1무에 소양 80전, 새로 개간한 수전에서는 소양 60전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遼寧省檔案館資料, JC10-2227; 길림성은 봉천성보다 늦게 1929년에 이르러서야 지령 제6395호로 발표한 『吉林省政府建設廳管理稻田水利暫行章程』에서는 수전 1무에 吉大洋 10전씩 징수한다고 하였다. 吉林省檔案館資料, 『吉林省政府建設廳管理稻田水利暫行章程』, 吉林省政府, L121-13 0101-20-0627.

45) 1922년 11월 2일 省議會의 수리세 不納請願의 咨에 대해 봉천성장은 수리국의 수리세 징수는 공사시행여부와 관계없이 稻田業主에게 청구하는 국유 하천의 이용에 대한 비용이라 하였다. 遼寧省檔案館資料, JC10-2227.

46) 1920년에는 100元 奉天票에 日本金票 100圓을 바꾸었는데 1921년에는 71.9圓, 1926년에는 단 27.8원, 1929년에는 1.76원 밖에 바꿀 수 없었다. 『滿蒙資源要覽』, 193면.

47) 趙中孚, 1974 『近代東三省移民問題之研究』,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集刊, 제4기 613-664쪽 참조.

48) 『奉天通志』, 卷39.

49) 중국동북지역에서의 토지경계는 동서남북의 경계선에 의해 구분된다. 보통 실제 토지면적은 地券에 기재된 면적보다 훨씬 컸는데 그 초과부분을 浮多地라 칭하였다. 地券에 기록된 면적의 10배, 20배에 달하는 부다지도 적지 않았다. ‘만주국’ 시기 부다지는 地券소유자의 소유권으로 인정되었다. 滿洲事情案内所, 1940 『滿洲の土地事情』, 43면.

하도록 유치하는 것), 催墾(개간하도록 재촉하는 것), 搶墾(개간하지 않을 경우 개간권을 회수해 다른 사람에게 개간하도록 맡기는 것) 등의 토지개발권 장정책, 난민수용소와 구제소의 설치, 철도부문에서의 이민에 대한 혜택정책 등 일련의 적극적인 노동력유치정책 등으로 일어난 동북지역에서의 개발붐은 객관상 재만한인의 수전 개발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 주었다. 특히 동북지방 당국의 수전경작에 적합한 저습지에 대한 감가 불하정책은 수전개발을 직접 촉진시켰다.

봉천성에서는 1913년 盛京工部所屬의 牛庄葦塘溝 서쪽일대의 淤地를 일반인에게 불하하였고<sup>50)</sup> 1915년 1월 봉천성 官地 淸丈局은 반산현 소속의 六里河 양안과 안동현 소속의 압록강 연안 일대의 저습지를 다시 조사, 측량하여 1916년 11월까지 반산, 안동 두 현 소속 저습지 38.19만여 畝를 불하하였다. 1927년 7월 봉천성 수리국은 수전 개발을 위해 신민, 요중 2현 경내 포하 연안의 余荒도 불하하였다.<sup>51)</sup>

길림성은 저습지 불하 과정에서 減價불하 해 주는 富錦成案과 宝淸成案까지 실행하였다. 富錦成案은 1921년 길림성 부금현의 柳樹河, 칠성하, 安邦河 일대와 夾河 양안의 80~90方 되는 저습지가 경작하기 불편한 곳임을 감안해 다른 곳과 구별해 3晌을 1晌으로 계산해주고 지가는 여전히 『修正淸丈地畝規則』 제16조에 근거해 1상에 荒地가격으로 大洋 1원 50전을 받고 그 외 1상에 2할의 부가등록비, 등록증 한 장에 1원, 인지 10전을 징수한다는 것이다.<sup>52)</sup> 이 부금성안은 부금현 뿐만 아니라 1922년에는 의안, 발리, 보청, 요하, 동강 등 5현 범위로 확대, 적용되었다. 그 후 宝淸成案<sup>53)</sup>도 나타났다는데 보청성안은 宝淸縣의 板石河, 双柳河 등 여러 곳의 저습지 7만여 상을 3상을 1상으로 계산해주고 1晌에 대양 80전, 1상 가격에 부가등록비 2.5할을 징수한다는 것이었다.<sup>54)</sup> 이와 같은 저습지 감가불하정책은 수전 적합지인 저습지의 불하를 순조

50) 『營商日報』, 1913년 9월 26일.

51) 遼寧省檔案館, JC10-4230.

52) 吉林省檔案館 吉林省政府實業廳, L16 J111-02-0854; 吉林省政府, L121 J101-10-0430.

53) 吉林省檔案館 吉林省政府實業廳, L16 J111-02-0854.

54) 1928년 2월 1일 각 현에서 수전 적합지를 불하할 때는 민간의 토지매매지가가 많이 올랐고 沿邊 각 현의 황지불하가격도 모두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저습지를

롭게 해 주었다. 중국인보다 뒤늦게 들어온 한인들은 조선에서의 벼농사 경험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중국인들이 포기하다시피 한 습지를 지주와 계약을 맺고 벼농사를 하며 만주의 토지개발을 진일보 촉진시켰다.

### 3. 중국동북지방당국의 재만한인의 벼농사 억제정책

#### 1) 토지소유권의 금지

이민은 선주민으로부터 강한 배척을 받는 것이 상례이다. 특히 만주 조선 이주민의 경우, 일본이 이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세력을 만주로 침투시키려 했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되어갔다.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14년 산둥에 출병하였고 1915년 황제로 되고자 하는 원세개에게 ‘二十一個條’를 강요하여 5월 25일에『남만주 및 동부내몽고에 관한 조약과 교환공문』(이하 ‘만몽조약’으로 줄임)을 체결하면서 대륙침략을 다그쳤다.<sup>55)</sup> 그리고 동북지역에 널리 분포된 한인을 귀화여부에 관계없이 일본제국의 ‘신민’이라며 그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영사재판권을 주장하며 침략확장에 이용하였다.

동북지방당국은 일본인의 토지취득의 주요 형식인 상조권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훈령을 내림과 동시에 한인의 동북지역이주와 수전 확대에 따른 일본세력의 확장을 최대 골칫거리로 보고 일제의 주권침범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이유로 한인의 토지상조권 적용을 포함해 처음부터 토지소유권의 획득을 금지하고 소작에 대해서도 엄격히 단속하는 조치들을 추진하였다. 경제적으로는 벼농사에 유능한 한인이 필요하였지만 일제의 침략을 저지하는 것이 더 급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만주에서 일제 세력이 팽창할수록 재만한인의 사회적

부금성안이나 보청성안에 따라 불하하지 않고 1상 가격은 보청성안의 倍가 되는 大洋 1원 60전으로 불하하였고 그 후로는 할인해 주지 않았다. 吉林省檔案館 吉林省政府, L16 C42 J101-17-0190.

55) 일본은 남만주에서 토지를 상조하고 동부내몽고에서 중국인과 합작하여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냈다. 일본외무성편, 1965 『日本外務年表並主要文書』 상, 原書房, 406-407면.

지위 및 경제적 토대는 위축되어 갔고, 그들의 주요 생업인 수전 개발과정이 더 고통스러웠고 어려워졌다.

그리고 1915년 ‘만몽조약’체결전의 동변도, 遼瀋道の 한인이 典權, 또는 押權에 의해 획득하는 기한부 토지사용권도 금지하였고 귀화한 한인의 토지소유권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였다. 봉천성에서는 일본출적증서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한인의 귀화를 제한하고 구축하는 방식으로 수전을 주업으로 하는 한인 인구를 줄이며 침략의 후환을 방지하고 일본과의 교섭을 감소함으로써 그 침략세력의 확대를 저지하려 하였다. 1917년 4월 16일에 農商總長은 봉천성장, 길림성장에게 旅滿 조선인회가 ‘만몽조약’의 상조규정에 따라 수전을 收買하려고 한다며 지방관청이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엄밀히 감시하도록 하였다.<sup>56)</sup>

1918년 봉천성에서는 『提唱華民耕種水稻方法』을 발표하여 각 현에서 水田冊子를 작성하여 만약 典賣, 대여, 소작할 경우, 百什家長이 연명한 結을 제출하고 당사자가 현에 보고해 허락을 얻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였다. 특히 이미 입적한 한인에 대한 부동산 양도를 특별히 등기하게 하여 외국인에게 이전되지 않도록 방지하였다.<sup>57)</sup> 1923년 11월 20일 봉천성 안동현지사 판당보(關定保)는 浪頭村의 주민 왕쯔원(王治文) 등이 상조수속과 토지조차규정을 어기고 사사로이 韓僑를 불러들여 수전을 경영한 것에 대해 뤼쉐우(呂學武)에게는 토지를 빌려준 죄로 벌금 대양 60원, 그 외의 리쥔산(李振山), 리쥔더(李振德), 양병이(楊鳳儀)등을 포함해 합계 대양 4885원의 벌금을 징수하는 처벌을 내렸다.<sup>58)</sup>

길림성은 귀화하면 중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주고 벼농사하면서 거주하도록 하였지만 일본이 한인을 이용해 토지를 수매하는 流弊를 줄이기 위해 귀화한인의 토지소유권획득에 대해 따로 장정을 정해 제한하였다.<sup>59)</sup> 간도지역은 1909년 간도협약 후 묵인된 한인이 귀화한인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구입하는

56) 吉林省檔案館資料 吉林省政府 L121 J101-06-0286

57) 吉林省檔案館資料, 吉林省政府實業廳, L11 J111-02-0797. J101-07-1407.

58) 遼寧省檔案館資料, JC10-7563.

59) 滿鐵太平洋問題調查準備會, 1931 『東北官憲所發排日法令輯』, 31-32면; 朝鮮總督府警務局, 1930 『在滿鮮人ト支那官憲』, 朝鮮總督府行政學會印刷所, 286면.

佃民制가<sup>60)</sup>取締대상이 되었다. 1917년 음력 정월 10일 혼춘 제1구 興仁鄉 향장 마보원(馬步雲)이 자기의 숙지 11상을 조선에 거주하고 있는 丁光賢에게 典賣함에<sup>61)</sup> 대해 길림성정부는 典賣금액을 돌려주고 계약서를 받아내 무효로 하였으며 각 구 및 鄉長佐들에게 이와 같은 안전을 엄격히 단속하도록 명령을 내렸다.<sup>62)</sup>

## 2) 소작조건규제와 실태

토지소유권을 가지지 못한 이주한인들은 분익소작법을 취하였는데 대부분 赤手空拳으로 들어 온 한인들은 처음에는 분익소작도 할 수 없어 榜青형식을<sup>63)</sup> 취하였다. 1915년 ‘만몽조약’이 체결된 후 일제의 침략이 가속화되자 동북지방당국은 한인의 토지소유권을 엄금함과 아울러 조선인에게 토지를 租借하는 것도 국제교섭의 분규를 초래케 한다며 소작권에 대해서도 엄격히 단속하기 시작하였다. 2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심지어 소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제한된 고용만 하게 하거나, 구축하기까지 하였다.

1915년 ‘만몽조약’ 체결된 후 쟁쑤린(張作霖)은 남만지역 내에서는 한교가 현 공서의 심사허가를 거쳐 수전경작의 단기 소작계약을 맺을 수 있지만 장기소작계약은 불허하였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한교의 수전 경작과 入住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훈령을 내렸다.<sup>64)</sup>

60) 佃民制라는 것은 몇 명, 혹은 수십명의 비귀화조선인들이 자금을 모아 귀화인의 명의로 토지를 구입한 후 금액에 따라 地權을 나누어 가지는 제도였다. 그들은 토지소유관계를 확증하기 위하여 이른바 馬上草라 불리는 토지대장을 만들었고 그 지분도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었다.

61) 吉林省檔案館, 吉林省政府, C435 J101-06-1241.

62) 吉林省檔案館, 吉林省政府, C24 J101-06-1273.

63) 방청형식은 또한 지주가 토지와 가옥은 물론, 농업에 필요한 역축, 농기구, 종자, 비료 등 생산수단과 일용품, 의복,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까지 소작인에게 대여하고 수확 후 반환하는 방식으로 보통 수확물을 지주 6~7분, 소작농 3~4분의 비율로 분배하는 內榜青과 지주가 토지와 가옥만 제공하고 기타 생산수단과 생활필수품은 소작인 스스로가 해결하고 지주 4~5분, 소작농 6~5분으로 거의 일반 소작농과 유사한 外榜青형식이 있었다. 淺田喬二, 1968 『日本帝國主義と舊植民地地主制』, 174면.

64) 遼寧省檔案館資料, JC-7563.

1923년 봉천성장공서는 遼瀋道 각 현에 명령을 내려 안동현의 재만한인의 벼농사에 관한 규제방법에 따라 규제하도록 하였다. 안동성의 규제방법은 소작계약은 반드시 관할 순경국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작기간은 1개년을 넘지 않으며 단지 벼농사에서만 조선인의 소작경작이 가능하였고 旱田에서는 불허하였다. 이에 준해 1924년 봉천성 沈陽縣은 4월 이후 외국인에게 빌린 토지와 가옥은 모두 1년의 短期租借로 변경하라는 명령을 내렸다.<sup>(65)</sup>

1925년 6월 11일 『三矢協定』의<sup>(66)</sup> 체결을 계기로 봉천성에서는 재만한인에 대해 1년의 단기소작을 불허하고 제한된 고용만 허용하고 심지어 구축까지 하였다. 1928년에 봉천성 정부는 『奉天省管理韓僑章程總則』을 반포하고 해마다 4월, 10월 2차례 한인의 호구를 조사하고 수시로 검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며 소행이 나쁘거나 유랑자에 대해서는 감금하거나 구축한다고<sup>(67)</sup> 하였다. 한인 구축정책의 실행은 수전 면적의 확대를 위축시켰다. 1923년 심양현, 신민현의 수전면적은 127,067무였는데 1928년은 53,131.6무로 42%나 줄어들었다.<sup>(68)</sup> 1929년 2월에 봉천성장은 남경정부의 지령에 따라 봉천성 60개 현 중 수전이 있는 37개 현에 대해 정부가 손실배상금으로 봉천양 500만원을 준비하여 즉시 수전을 회수하라는 훈령까지 내렸다.<sup>(69)</sup>

그러나 동북지방당국의 벼농사를 담당하는 재만한인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명령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 벼농사를 하면 미개간지인 습지가 개척되고, 지가가 오르고,<sup>(70)</sup> 소작료를 인상시킬 수 있고,<sup>(71)</sup> 단위당 소출이 소맥, 대두

65) 遼寧省檔案館資料, JC10-7563.

66) 日本外務省編, 1966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 下, 原書房, 75면.

67) 朝鮮總督府警務局, 1930 『在滿鮮人と支那官憲』, 行政學會印刷所, 178-179면.

68) 沈陽市民委民族誌編纂辦公室, 1989 『沈陽朝鮮族志』, 56면.

69) “查韓僑之入境耕作, 系日人之植民政策, 爲供給日之民食爲目的, 今南北統一, 舉國一致斷行排斥日貨之際, 本政府奉南京政府之命令, 決定今後將韓僑耕作之水田悉皆收回, 自2月至3月限期回收。凡2-3月間租借之水田全部解約。由此產生之損失, 由各縣支出賠償金。本省有水田之37縣, 本政府將支付有關縣以奉票五百萬元, 以供其着手回收事務” 楊昭全, 李鐵環, 1992 『東北地區朝鮮人革命鬥爭資料匯編』 遼寧民族出版社, 1042쪽; 봉천성의 수전회수령에 이어 1930년 5월 길림성 농광청에서는 각 현장더러 관할 각 鄉長 및 농회장에게 조선인이 경작하는 수전을 점차 몰수하라고 명령 내렸다. 朝鮮總督府警務局, 1930 앞의 책, 269-270면.

70)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가가 폭등한 결과 수전 지가도 급등하였는데 간도와 혼춘의 接壤지대인 敦化, 額穆 두 현에서는 1926년에 밭이 상등 70원, 하등 50원,



보다 훨씬 높으며<sup>72)</sup> 제1차세계대전 중의 미가폭등현상으로 인해 그 가격 또한 오르기만 하여 높은 소득을 획득할 수 있는데다가 운작 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지주는 밭농사에 비해 수익성이 높은 벼를 選好하기 마련이었다. 그리하여 정부의 嚴令에도 불구하고 지주들은 사사로이 한인을 불러들여 벼농사를 하도록 토지를 빌려주고 맨 주먹으로 들어온 한인에게 미리 생활비를 대여해 주기도 하였다. 당시 지방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사로이 토지를 한인에게 임대 혹은 소작시킴으로써 처벌받은 지주가 적지 않았다. 안동현만 하여도 1923년 1월 7일에서 9월까지 52명이나 되었다.<sup>73)</sup>

또한 당시 수전 개발은 초기단계에 있어 중국토착민은 벼농사 경작요령을 완전히 습득하지 못하고 한인 노동자에 의지해야 하였으므로 완전한 구축은 불가능하였다. 그리하여 지주뿐만 아니라 지방관헌도 한인을 구축하면 수전이 금방 황폐해진다고 하며 지방경제 발전을 위한다는 이유로 일련의 규제 훈령을 제대로 잘 집행하지 않았다. 보통 중국인 지주와 조선인 농민간의 소작계약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맡기고 간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뇌물을 받고 묵인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sup>74)</sup> 봉천성 懷德縣 지사 왕짜당(王家鼎)은 1922년 3월 8일 봉천성장에게 올린 문에서 바와 이와 같은 이유로 한인들을 구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sup>75)</sup> 지방당국의 규제훈령이 지속적으로 계속 많이 내린 사실은 한편으로는 그 훈령들이 잘 지켜지지 않은 실정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재만한인의 소작관계에 대한 단속과 규제의 강도가 극에 달했던 1931년 7월에

---

미개간 可耕地가 1정보에 10원 이하인데 비해, 수전 지가는 대체로 1정보당 120圓이나 되었다. 在間島 末松警視, 『朝鮮人ノ間島・琿春同接壤地方移住ニ關スル調査』, 1926년 3월 金正柱, 1971 『朝鮮統治史料』 10, 358면.

71) 봉천부근의 수전 소작료는 종래 분배율이 지주 4, 소작인 6이었는데 1925년은 절반씩, 1926년은 지주 6, 소작인 4로 소작료가 높아졌다. 尾池禹一郎, 1927 『滿蒙の米作と移住鮮農問題』, 103-107면.

72) 1919년 大楡樹曾根農場의 1만 당 수전收支는 21.27엔이나 되어 고량, 속, 대두 등의 1만당 수익이 2~3엔인데 비해 훨씬 높았다. 滿鐵地方部勸業課, 1921 『滿洲の水田』, 101면; 58면.

73) 朝鮮總督府警務局, 1930 앞의 책, 242-243면.

74) 1927년 청원현정부는 조선인 100여 호에 대해 퇴거할 것을 명령하였지만 지사는 1,000여 원을 받고 그들의 거주를 묵인했다. 『營口及附近在住朝鮮人と遼河沿岸水田發達の現状』, 『南滿及東蒙朝鮮人事情-附, 水田事業の現状』, 1922 307면.

75) 遼寧省檔案館資料, JC10-7563.



길림성 중심지에 있는 장춘현 만보산지역에서 韓中 농민들사이에 발생한 분쟁사건인 만보산사건은<sup>76)</sup> 그 당시 속속 내려졌던 엄격한 제한이 그대로 집행되지 않는 허술한 실태를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봉천성 정부가 재만한인들을 구축하거나 제한된 고용을 실시하였지만 북북 지역에서는 귀화하면 토지소유권을 얻을 수 있었고 그 외에 租借權, 典權, 押權 등 토지이용권한도 취득할 수 있었으며 분식소작형식도 소작인에게 유리하였다. 그리하여 재만한인들은 규제가 적고 개발을 기다리는 황지가 많은 북부지역으로 재이주하였다. 이 시기 北海稻種이 보급되면서 북부지역에서도 벼경작이 가능해 저 벼농사는 북부지역으로 확대해 갔다. 1926년 봉천성의 수전면적이 1924년의 42.4%에 지나지 않는 19,399ha로 감소를 나타내는 반면, 길림성에서는 1924년보다 32.4% 증가한 23,287ha으로 확대한 것도 이 점을 확증해 준다.

1920년대 중반 이후 지주는 당국의 재만한인에 대한 규제명령을 빙자로 가옥임대료, 소작료, 영농비 대부이자를 높이거나 한인 소작농들이 많은 비용과 노동력을 들여 만든 숙지를 몰수하여 직접 수전경작하거나 자신에게 더욱 유리한 소작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형식상 지주가 부담해야 할 것도 조선인 소작인에게 轉嫁하거나 공동 부담하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리하여 한인의 소작조건은 더욱 불안해지기만 하였다.

#### 4. 결 론

중국동북지역의 수전개발은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청의 압록강 北岸지역에 대한 封禁이 완화되고 북방지역 漢人들의 旱田위주의 개발붐에 힘입어 1875년에 압록강상류의 대안인 통화지역에서의 재배성공을 시점으로 한인들에 의해 개시되고 줄곧 담당되었다. 만주사변전 사회경제전반에 결정적 역할을 한 동북지방당국의 중국인 개개인과 稻田公司에 의한 벼농사 권장정책, 전문적인 관리기구인 수리국, 수리분국의 설치를 통한 수리분쟁조정과 수리관리의 강화, 저습지를 포괄한 황무지의 지속적인 減價 불하정책 등은 객관적으로 재만한

76) 이 사건에 대해 박영석교수의 『만보산사건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인의 수전개발에 결정적인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동북지방당국의 벼농사 권장은 어디까지나 중국인 위주의 벼농사권장이었다.

그러나 재만한인의 벼농사개발과정은 일제의 조선식민지화, 동북지역침략시기와 겹쳤다. 일제는 동북지역 침략에서 줄곧 재만한인들을 이용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동북지방당국은 수전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이주 한인과 일제의 침략세력의 확장을 저지한다는 의미에서 한인들에 대한 토지소유권을 엄금하였고 소작조건도 제한하는 정책을 폈다. 특히 1920년대 後期에 이르러 일제의 침략이 한층 더 다그치자 단기소작도 불허하였고 제한된 고용과 구축까지 일삼는 규제정책을 폈다. 이와 같은 재만한인에 대한 억제정책으로 말미암아 재만한인에 의한 수전개발은 더욱 어렵고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벼가 다른 한전작물에 비교해 수익성이 높았고, 전망도 밝았기 때문에 만주사변 전 지주는 물론, 지방관헌도 지방경제를 위한다는 이유로 벼농사를 선호하였다. 그리하여 당국의 재만한인에 대한 엄격한 규제명령은 제대로 집행되지 않기 마련이었다. 재만한인이 벼농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많은 한인들의 지속적인 이주와 넓은 범위에서의 정착이 어려웠을 것이다.

동북지방당국의 대대적인 벼농사 권장과 관리의 강화, 벼농사기술을 가진 60여만명의 나라 잃은 재만한인들이 생존을 위해 끈질기게 여러 불리한 여건들을 극복하면서 수전을 즐기치게 개발하였기 때문에 1931년 만주사변까지의 50여년의 짧은 기간에 벼농사는 어떤 작물의 발달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만주사변전 1931년의 수전면적은 8만 1800ha에 달하였고<sup>77)</sup> 1929년에는 북위 49도에 가까운 博克圖까지 벼를 시험재배하였다.<sup>78)</sup> 이는 세계농업개발사의 일대 기적이었다. 만주사변직전에 대체로 1945년 광복때의 수전분포 기본구도가 이미 형성되었다.

(필자 : 中國 遼寧大學 歷史學科 부교수)

77) 東北經濟小叢書, 1947 『農産・生産篇』, 93면.

78) 伊藤榮之祐, 1931 『滿洲ニ於ケル水稻栽培』, 2면.

## &lt;Abstract&gt;

## The Measures of the Chinese Authorities in Manchuria toward the Rice Cultivation of Korean Immigrants before the Invasion of Japan

Jin Ying

Since the early days of the Ch'ing dynasty the Chinese people have moved to the Northern area of China, and after reaching the Manchurian area they started to plant cereals like beans, millet, corns, which were suited for dry land cultivation. But the Korean people who later immigrated into this area started to utilize the damp(swamp) areas, turned them into rice fields and widely initiated rice agriculture. This marked the beginning of irrigated agriculture inside the Manchurian area, and the Korean people's rice field agriculture successfully joined the traditional dry field agriculture of this area. The establishment of this new agricultural measure helped boosting the entire economy of Manchuria, as it guaranteed considerable agricultural development throughout the area. Rice field products were more profitable than any other dry field products. So it was natural that the authorities of Manchuria and the landlords actively preferred and encouraged rice cultivation.

But the period of development of Manchurian rice agriculture overlaps some series of events includ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of Korea, the Japanese occupation of Manchuria, and the full-scale war which involved

the Japanese invasion of China. In the course of these events, Japan incessantly tried to take advantage of the Korean people in the area as the agent of her infiltration. As the results the measures taken by the authorities were mixed, and sometimes codtradicting each other.

They took such measures to support the Korean people in their efforts of establishing and expanding the rice cultivation as (i)helping establish rice cultivating companies, (ii) intensified control of irrigation system, (iii) encouraging reclamation by distributing unreclaimed lands(including swamps) at substantially lower prices. At the same time, they tried to enforce such restrictive measures as (i) prohibition of land ownership by Korea immigrants, (ii) aggravating tenant conditions. These measure put Korean immigrants in a even more difficult position regarding rice agricultural environment, and led to an actual drop of productivity and square measure of rice cultivation areas in the 1920s'.

But the cultivation in general, managed to survive and continue its development. The temptation of high profitability of rice crop was so strong that the authorities were just unwilling to ascertain if their decrees were being observed tightly.

Key Words : Manchuria, Rice, Rice agriculture, Sudo(水稻-rice), Korean Immigrants